

국 어

해설위원 : 정 채 영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1.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지도 위에 손가락을 짚어 가며 여행 계획을 설명하였다.

- ① 이마를 짚어 보니 열이 있었다.
- ② 그는 두 손으로 땅을 짚어야 했다.
- ③ 그들은 속을 짚어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 ④ 시험 문제를 짚어 주었는데도 성적이 좋지 않다.

정답> ④

정답풀이>

밑줄 친 '짚다'의 의미는 '여럿 중에 하나를 꼭 집어 가리키다.'는 뜻으로 쓰였다.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④ '시험 문제를 짚어 주었는데도 성적이 좋지 않다.'에 쓰인 '짚다'이다.

오답풀이>

- ①에서 '짚다'는 '손으로 이마나 머리 따위를 가볍게 눌러 대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②에서 '짚다'는 '바닥이나 벽, 지팡이 따위에 몸을 의지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③에서 '짚다'는 '상황을 헤아려 어떠한 것으로 짐작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문 2. 사동법의 특징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 ① 그는 김 교수에게 박 군을 소개시켰다.
- ②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러 아이를 입원시켰다.
- ③ 생각이 다른 타인을 설득시킨다는 건 참 힘든 일이다.
- ④ 우리는 토론을 거쳐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킨다.

정답> ②

정답풀이>

'시키다'는 서술성을 가지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시키다'가 붙은 모든 말이 잘못된 아니고, '시키다'가 붙은 단어를 쓸 자리가 아닌데 쓰는 것이 잘못이다.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러 아이를 입원시켰다."는 아이가 스스로 입원한 것이 아니고, 아이를 입원하게 한 것이므로, 이 문장에서 '병을 고치기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 들어가 지내게 하다.'의 의미를 가진 '입원시키다'를 쓴 것은 바르다.

오답풀이>

- ① 소개시키다(x) ⇒ 소개하다(○): "그가 김 교수에게 박 군을 소개하다"라는 말은 그가 직접 소개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가 김 교수에게 박 군을 소개시키다"라고 한다면 박 군을 소개하기 위해 김 교수에게 요청하여 "그가 김 교수에게 박 군을 소개하게 하다"라는 맥락이 된다. 따라서 '소개하다'를 쓸 맥락에 '소개시키다'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다.
- ③ 설득시키다(x) ⇒ 설득하다(○): '타인을 설득시키다'는 타인에게 설득하는 일을 요청하는 것이고, '타인을 설득하다'는 상대방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하는 것이므로, 맥락상 '타인을 설득하다'가 바른 표현이다.
- ④ 해소시키다(x) ⇒ 해소하다(○):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 버리다.'의 뜻을 나타내려면 '해소하다'를 쓰는 것이 바르다. '해소' 뒤에,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시키다'가 붙은 '해소시키다'를 쓰면, 주체가 제3의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해소'를 하도록 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소'를 하는 것이므로 '해소하다'로 바꾸는 것이 맥락상 적절하다.

문 3. 밑줄 친 부분의 이유에 대한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관리가 본디부터 간악한 것이 아니다. 그들을 간악하게 만드는 것은 법이다. 간악함이 생기는 이유는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다. 대체로 직책은 하찮은데도 재주가 넘치면 간악하게 되며, 지위는 낮은데도 아는 것이 많으면 간악하게 되며, 노력을 조금 들였는데도 효과가 신속하면 간악하게 되며, 자신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는데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이 자주 교체되면 간악하게 되며,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의 행동이 또한 정도에서 나오지 않으면 간악하게 되며, 아래에 자신의 무리는 많은데윗사람이 외롭고 어리석으면 간악하게 되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약하여 두려워하면서 잘못을 밝히지 않으면 간악하게 되며, 자신이 꺼리는 사람이 같이 죄를 범하였는데도 서로 버티면서 죄를 밝히지 않으면 간악하게 되며, 형벌에 원칙이 없고 엄치가 확립되지 않으면 간악하게 된다. …… 간악함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 대체로 이러하다.

- ① 노력은 적게 들이고 성과를 빨리 얻는다.
- ② 자신이 범한 과오를 감추고 남의 잘못을 드러낸다.
- ③ 자신은 같은 자리에 있으나 감독자가 자주 교체된다.
- ④ 자신의 세력이 밑에서 강한 반면 상부는 외롭고 우매하다.

정답> ②

정답풀이>

제시문에서 "자신이 꺼리는 사람이 같이 죄를 범하였는데도 서로 버티면서 죄를 밝히지 않으면 간악하게 되며"를 통해 '서로 죄를 밝히지 않았을 때' 간악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범한 과오를 감추고 남의 잘못을 드러낸다'는 것은 간악함이 일어나기 쉬운 필자의 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 ① 제시문의 "노력을 조금 들였는데도 효과가 신속하면 간악하게 되며"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제시문의 "자신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는데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이 자주 교체되면 간악하게 되며"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제시문의 "아래에 자신의 무리는 많은데 윗사람이 외롭고 어리석으면 간악하게 되며"를 통해 알 수 있다.

문 4.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머언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나는 열두 구비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 박목월, 「청노루」 -

- ① 묘사된 자연이 상상적, 허구적이다.
- ② 이상적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 ③ 시적 공간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좁아오고 있다.
- ④ 사건 발생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재가 배열되고 있다.

정답> ④

정답풀이>

이 시에서는 '공간의 이동'에 의한 제재의 배열이 나타날 뿐 '시간적 순서'에 따른 제재의 배열을 찾아 볼 수 없다. '공간의 이동'은 '먼 곳→가까운 곳', '아래→위' 등 장소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방법이다. 장소의 이동은 화자나 시적 대상이 위치하는 공간이 달라지며, 시선의 이동은 화자의 위치는 고정된 채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는 것이다. 이 시에서는 이러한 공간의 이동 방식 중에서 '먼 곳→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이동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① 이 시에 드러난 자연 풍경은 실제 현실이 아니라 상상력에 의해 설정된 가상공간이다.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풍경, 푸른색의 청운사와 청노루, 자주색의 자하산 등은 모두 일상 세계의 현실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공간이다. 따라서 묘사된 자연이 상상적, 허구적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② 이 시는 한 폭의 동양화와 같은 평화로운 자연 공간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이를 통해 이상적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이 시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해 가면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청운사와 자하산에서 계곡의 느릅나무로, 그리고 노루의 눈에 비친 구름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더 알아보기> 박목월, '청노루'

박목월의 초기 시로, 간결한 리듬과 압축적인 표현으로 탈속적인 자연의 정취를 한 폭의 동양화처럼 형상화한 작품이다. 한가로운 노니는 청노루의 모습을 통해 속세에서 벗어난 이상향의 봄 풍경을 표현했으며 시선의 이동에 의해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문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방(孔方)의 자는 관지(貫之, 궤미)이다. …… 처음 황제(黃帝) 때에 뽑혀 쓰였으나, 성질이 굳세어 세상일에 그리 익숙하지 못하였다. 황제가 ㉡ 관상을 보는 사람(相工)을 불러 보이니, 그가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말했다. “산야(山野)의 성질이어서 비록 쓸 만하지 못하나, 만일 만물을 조화하는 폐하의 풀무와 망치 사이에 놓아 때를 굵고 빛을 같면 그 자질이 마땅히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 왕자(王者)는 사람을 그릇(器)으로 만듭니다. 원컨대 ㉣ 폐하께서는 저 완고한 구리[銅]와 함께 내버리지 마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에 이름을 드러냈다.

- ① ㉠은 ㉡의 결정에 의해 세상에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
- ② ㉠은 ㉠의 단점보다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 ③ ㉢은 ㉠에게 자신의 견해를 펼칠 기회를 제공하였다.
- ④ ㉢은 ㉡의 이상적인 모습을 본받고 있다.

정답> ③

정답풀이>

㉢ 왕자(王者)는 '왕이라는 것'을 뜻한다. 제시된 글에서 "왕자(王者)는 사람을 그릇[器]으로 만듭니다."라는 말은 '왕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자리이다.'는 뜻이다. 이는 황제에게 관상가가 '공방'을 내버리지 말라는 의도로 '왕'의 역할에 대해 말한 것이다. 따라서 ㉢ 왕자(王者)가 ㉡ 관상을 보는 사람[相工]에게 자신의 견해를 펼칠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풀이>

- ① ㉢ 폐하(황제)는 ㉡ 관상을 보는 사람[相工]에게 ㉠ 공방(孔方)의 관상을 보게 하였고, 이로 인해 ㉠ 공방(孔方)은 세상에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 공방(孔方)이 ㉢ 폐하(황제)의 결정에 의해 세상에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② ㉡ 관상을 보는 사람[相工]은 ㉠ 공방(孔方)이 "비록 쓸 만하지 못하"지만, "풀무와 망치 사이에 놓아 때를 굵고 빛을 같면 그 자질이 마땅히 점점 드러날 것"이라고 하여 단점보다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 폐하(황제)는 "왕자(王者)는 사람을 그릇[器]으로 만듭니다."라는 관상가의 말을 듣고 '공방'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였으므로, ㉢ 왕자(王者)의 이상적인 모습을 본받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구절 풀이>

- 공방(孔方)의 자는 관지(貫之, 궤미)이다. - '공방'은 엽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옛날에 엽전은 꾸러미에 꿰어 보관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관지'라고 명명하였다.
- 성질이 굳세어 세상일에 그리 익숙하지 못하였다. - 돈이 쓰이지 않았던 시기임을 드러내고 있다.
- 풀무와 망치 사이에 놓아 때를 굵고 빛을 같면 그 자질이 마땅히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 엽전을 주조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왕자(王者)는 사람을 그릇[器]으로 만듭니다. - 왕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자리라는 뜻이다.
- 이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에 이름을 드러냈다. - 화폐가 세상에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더 알아보기> 임춘, '공방전'

엽전(葉錢)을 의인화하여 탐재(貪財)를 경계한 이야기이다. 돈이 당대의 질서를 해친다는 것과 함께 당시 벼슬아치들의 윤리적 타락을 지적함으로써 돈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작품이다. 주인공 이름인 '공방(孔方)'은 겉은 둥글고 안에 네모난 구멍이 있는 엽전의 형상에서 따온 것이다. '공방'은 욕심이 많고 염치가 없는 부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백성들로 하여금 농업을 멀리하고 오직 이익을 쫓는 일에 몰두하게 만들고, 이해득실을 따져 시정잡배들과 문란하게 어울린다. 작가는 공방의 모습을 통해 잘못된 사회상을 풍자하고, 이를 경계하도록 깨우침을 주고자 한 것이다.

문 6.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가) 생명체들은 본성적으로 감각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에는 감각으로부터 기억이 생겨나지 않는 반면 일부의 경우에는 생겨난다. 그리고 그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생명체들은 기억 능력이 없는 것들보다 분별력과 학습력이 더 뛰어난데, 그중 소리를 듣는 능력이 없는 것들은 분별은 하지만 배움을 얻지는 못하고, 기억에 덧붙여 청각 능력이 있는 것들은 배움을 얻는다.
- (나) 앞에서 말했듯이, 유경험자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기술자는 유경험자들보다 더 지혜로워, 이론적인 지식들은 실천적인 것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므로 지혜는 어떤 원리들과 원인들에 대한 학문적인 인식임이 분명하다.
- (다) 하지만 발견된 다양한 기술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필요 때문에, 어떤 것들은 여가의 삶을 위해서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후자의 기술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전자의 기술들을 발견한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여러 가지 인식은 유용한 쓰임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종류의 모든 발견이 이미 이루어지고 난 뒤, 여가의 즐거움이나 필요,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학문들이 발견되었으니, 그 일은 사람들이 여가를 누렸던 여러 곳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다. 그러므로 이집트 지역에서 수학적인 기술들이 맨 처음 자리 잡았으니, 그곳에서는 제사장(祭司長) 가문이 여가의 삶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 (라) 인간 종족은 기술과 추론을 이용해서 살아간다. 인간의 경우에는 기억으로부터 경험이 생겨나는데, 그 까닭은 같은 일에 대한 여러 차례의 기억은 하나의 경험 능력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험은 학문적인 인식이나 기술과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학문적인 인식과 기술은 경험의 결과로서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것이다. 그 까닭은 폴로스가 말하듯 경험은 기술을 만들어 내지만, 무 경험은 우연적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기술은, 경험을 통해 안에 쌓인 여러 관념들로부터 비슷한 것들에 대해 하나의 일반적인 관념이 생겨날 때 생긴다.

- ① (가) - (다) - (나) - (라)
- ② (가) - (다) - (라) - (나)
- ③ (가) - (라) - (나) - (다)
- ④ (가) - (라) - (다) - (나)

정답> ④

정답풀이>

• 각 단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생명체들은 감각을 갖고 태어나며 일부는 감각으로부터 기억이 생기고, 기억으로 인해 배움을 얻는다. [감각-기억]
- (나) 경험은 감각보다 지혜롭고, 기술은 경험보다 지혜롭고, 이론적 지식은 실천적 지식보다 더 지혜롭다. 지혜는 어떤 원리들과 원인들에 대한 학문적인 인식이다. [지혜-학문적 인식]
- (다) 기술 가운데 필요에 의한 실천적 기술보다 여가의 삶을 위한 이론적 기술이 더 지혜롭다. [기술: 실천적 기술, 이론적 기술]
- (라) 생명체들 중에서 인간은 기억으로부터 경험이 생겨나는데, 이러한 경험의 결과로 기술이 생긴다. [기억-경험-기술]

• 각 단락의 핵심 정보를 이어지는 순서대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지식은 (가) '감각'에서 시작하여 (라) '기억과 경험과 기술'에 이른다. (다) '기술'은 '실천적 기술'과 '이론적 기술'로 나뉜다. (나) '지혜'는 어떤 원리들과 원인들에 대한 학문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④ '(가) - (라) - (다) - (나)'이다.

문 7.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되새김 동물인 무스(moose)의 경우, 위에서 음식물이 잘 소화되게 하려면 움직여서는 안 된다. 무스의 위는 네 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에서 나뭇잎, 풀줄기, 잡초 같은 섬유질이 많은 먹이를 소화하려면 꼼짝 않고 한곳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 남서부의 사막 지대에 사는 갈퀴발도마뱀은 모래 위로 눈만 빼꼼 내놓고 몇 시간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있으면 따뜻한 모래가 도마뱀의 기운을 복돋아 준다. 곤충이 지나가면 도마뱀이 모래에서 나가 잡아 먹을 수 있도록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것이다. 반대로 갈퀴발도마뱀의 포식자인 뱀이 다가오면, 그 도마뱀은 사냥할 기운을 얻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을 때의 경험을 되살려 호흡과 심장 박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죽은 시늉을 한다. 갈퀴발도마뱀은 모래 속에 몸을 묻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수분의 손실을 줄이고 사막 짐승들의 끊임없는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 ① 무스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 ② 무스는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 식물을 가려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 ③ 갈퀴발도마뱀은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먹이를 구한다.
- ④ 갈퀴발도마뱀은 모래 속에 몸을 묻을 때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정답> ②
정답풀이>

무슨 섬유질이 많은 먹이를 소화하기 위해 꼼짝 않고 한곳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했을 뿐,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 식물을 가려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는 않았으므로 ②는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오답풀이>

- ① 제시문의 첫 문장에 '위에서 음식물이 잘 소화되게 하려면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다. 소화의 원활함은 생존과 연결된 것이므로, 무스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③ 제시문에서 갈퀴발도마뱀이 몇 시간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곤충이 지나가면 도마뱀이 모래에서 나가 잡아먹을 수 있도록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따라서 갈퀴발도마뱀이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먹이를 구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④ 제시문에서 갈퀴발도마뱀은 모래 속에 몸을 묻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수분의 손실을 줄이고 사막 짐승들의 끊임없는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모래 속에 몸을 묻을 때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문 8. (가)와 (나)를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문밖에 가랑비 오면 방 안은 큰비 오고 부엌에 불을 때면 천장은 굴뚝이요 흙 떨어진다 외대궁기 바람은 살 쏜 듯이 들이불고 틀만 남은 흰 문짝 멍석으로 창과 문을 막고 방에 반듯 드러누워 가만히 바라보면 천장은 하늘별자리를 그려놓은 그림이요, 이십팔수(二十八宿)를 세어본다. 이렇게 곤란이 더욱 심할 제, 철모르는 자식들은 음식 노래로 조르는데, 아이고, 어머니! 나는 용미봉탕에 잤쪽 좀 먹었으면 좋겠소.

(나) 한 달에 아홉 끼를 얻거나 못 얻거나
십 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안료누공(顔料屢空)인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헌(原憲)의 가난인들 나같이 심할까.
봄날이 길고 길어 소쩍새가 재촉커늘
동쪽 집에 따비 얻고 서쪽 집에 호미 얻어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울버 씨 한 말은 반 넘어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붙었거늘
많고 많은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 윗대궁기: 나뭇가지 등으로 엮여 흠을 바른 벽에 생긴 구멍
※ 안표누공(顔瓢屨空): 공자(孔子)의 제자 안회(顔回)의 표주박이 자주 빔
※ 원허(原憲): 공자의 제자

- ① (가)와 달리 (나)는 읽을 때의 리듬이 규칙적이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현재의 상황을 운명으로 수용하고 있다.
- ④ (가)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나)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답> ①

정답풀이>

(가)는 ‘작자 미상의 판소리계 소설 흥부가이고, (나) ‘정훈의 가사 ‘탄궁가’이다. 가사는 3·4조 또는 4·4조를 연속체로 하는 운문이다. ‘운문’이란 언어의 배열에 일정한 규율 또는 운율이 있는 글을 말하므로 운문인 (나)는 (가)에 비해 읽을 때의 리듬이 규칙적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② (가)에서는 ‘문밖에 가랑비 오면 방 안에서는 큰비가 오고, 문밖은 틀난 남아 있고, 천장을 보며 이십팔수(하늘의 적도를 따라 그 남북에 있는 별들을 28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부른 이름.)를 센다’고 하여, 가난한 상황을 과장되게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나)에서는 ‘안학(나) 원한보다 더 가난한 상황은 ‘이웃집에 가서 희망을 얻어 농사를 지었으나 곡식이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힘이 든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가)에서는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므로 ②는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 ③ (가)에서는 가난한 상황을 다소 과장되게 제시하였고, (나)에서는 “이리하여 어이 살리”라고 하여 가난한 현실에 대하여 탄식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현재의 상황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가)에서는 “이렇게 곤란이 더욱 심할 제”를 통해, (나)에서는 “많고 많은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를 통해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가)가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더 알아보기>

- (가) 작가 미상 ‘흥부전’

이 작품은 선인인 흥보와 악인인 놀보의 심성과 가치관의 차이를 바탕으로 물질적, 세속적 가치관이 우선시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반영한 판소리계 소설이다. 표면적으로는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였고, 이면적으로는 빈농과 부농 간의 갈등을 드러내어 빈부가 인간의 심성이 선함과 악함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당대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나) 정훈 ‘탄궁가’

이 가사의 구성은 6단으로 이루어졌다. 제1단은 서(序) 12구로 지은이와 공필함을, 제2단은 14구로 춘계(春季)와 빈곤함을, 제3단은 16구로 대책 없는 빈고(貧苦)를 그리고 있다. 제4단은 14구로 아내와 가난함에 대해, 제5단은 18구로 공필과 집안 식구들에 대해 그리고 있다. 제6단은 결(結)로 18구이며 탄식과 단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내용구조를 보면 <단궁>는 빈곤한 생활상을 소재로 생활주변의 일상적인 것들을 엮어 한 편의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서두를 작자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시점을 주변으로 확대하여 가며 소재를 고루 배치하고 있어 그 구성이 비교적 잘 짜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어 풀이> 정훈 '탄궁가'

한 달에 아홉 끼를 길거나 못 얻거나/십 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안희의 밥그릇이 비었다고 나같이 비었으며/원현의 가난인들 나같이 심할까/봄날이 길어 소쩍 새가 재촉하거늘/동쪽의 이웃집에 쟁기 얻고 서쪽의 이웃집에 호미 얻고/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느라/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주가 먹었고/기장, 피, 조, 팥은 서너 되 남았거늘/맛과 많은 씨를 나리 이하의 어찌 살리.

문 9. 다음 시조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옳은 일 하자스라
사람이 되어나서 옳지못 못하면
마소를 갓 고깔 씌워 밥 먹이나 다르라

- ① 鄉閭有禮 ② 相扶相助
③ 兄友弟恭 ④ 子弟有學

정답 > ①

정답풀이>

제시된 글은 정철의 ‘훈민가’ 제8수로 ‘향려유례(鄕閭有禮)’와 관련된 내용이다. ‘향려유례(鄕閭有禮)’는 ‘마을에는 예의가 있다’는 뜻으로, 이는 ‘옳은 일을 권장한다’는 것이다.

오답풀이>

- ② 상부상조(相扶相助): 서로서로 돕는다는 말이다. (훈민가 제13수) ㉞ 여와 저 조카야, 먹을 것이 없으면 어찌하겠는가./여와 저 아저씨야, 입을 것이 없으면 어찌하겠는가./어려운 일 다 말하려무나. 도와주고자 하노라.
- ③ 형우제공(兄弟恭):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한다’는 뜻으로, 이는 형제간에 서로 우애 깊게 지냄을 이르는 말이다.(훈민가 제2수) ㉞ 형아, 아우야, 네 살을 만져 보아라./누구에게서 태어났기에 모습조차 같은 것인가?/같은 것을 먹고 자라났으니 딴 마음을 먹지 마라.
- ④ 자제유학(子弟有學): ‘자제에게는 배움이 있다’는 뜻으로, 이는 자녀에게 학문을 권장한다는 것이다.(훈민가 제8수) ㉞ 네 아들 효경 워더니 얼마쯤 배웠느냐?/내 아들 소학은 모래먼 마칠 것이로다./어느 때 이 두 글을 배워 어질 것을 볼 것인가.

현대어 풀이>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을 하자꾸나./사람으로 태어나서 옳지를 못하다면/짐승에게 갓이나 고깔을 씌워서 밥을 먹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더 알아보기> 정철의 '훈민가'

조선 선조 때의 문신인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하였던 1580년(선조 13) 정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에 백성들을 계몽하고 교화하기 위하여 지은 작품이다. 송나라 때 진고령(陳古靈)이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조목별로 쓴 <선거권유문(仙居勸諭文)> 13조목에다, '군신(君臣), 장유(長幼), 봉우(朋友)' 3조목을 추가하여 각각 한 수씩 읊은 것으로, 유교의 윤리를 주제로 한 교훈가이다.

문 10. ㉠, ㉡에 들어갈 한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근무 여건이 개선(㉠)되자 업무 효율이 크게 올랐다.
○ 금융 당국은 새로운 통화(㉡) 정책을 제안하였다.

- ㉠ ㉡
① 改善 通貨
② 改選 通話
③ 改善 通話
④ 改選 通貨

정답> ①

정답풀이>

㉠ 개선(改善: 고칠 개, 착할 선): ㉠에는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듦'을 뜻하는 '개선(改善)'이 들어가야 한다.

㉡ 통화(通貨: 통할 통, 재물 화): ㉡에는 '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를 뜻하는 '통화(通貨)'가 들어가야 한다.

오답풀이>

- 개선(改選: 고칠 개, 가릴 선): 의원이나 임원 등이 사퇴하거나 그 임기가 다 되었을 때 새로 선출함.
- 통화(通話: 통할 통, 말씀 화): 전화로 말을 주고받음.

문 11. 다음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심리학에서는 동조(同調)가 일어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사람들은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하면 적어도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어떤 집단이 그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질서나 규범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집단의 압력 때문에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개인이 그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집단에서 배척당하기 쉽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람들은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동조를 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신이 믿지 않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동조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조는 개인의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나에 따라 그 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수록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거나 그 결속력이 강할 때,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위와 지위, 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때도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의 만장일치 여부도 동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만약 이때 단 한 명이라도 이탈자가 생기면 동조의 정도는 급격히 약화된다.

- ① 영희: 줄 서기의 경우, 줄을 서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그 줄 뒤에 설 확률이 더 높다.
② 철수: 특히 응집력이 강한 집단에 항거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야. 이런 경우, 동조 압력은 더 강할 수밖에 없겠지.
③ 갑순: 동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매한 조직의 결속력보다 개인의 신념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④ 갑돌: 아침에 수많은 정류장 중 어디에서 공향버스를 타야 할지 몰랐는데 스텐더리스 차림의 여성이 향하는 정류장 쪽으로 따라갔었어. 이 경우, 그 스텐더리스 복장이 신뢰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겠네.

정답> ③

정답풀이>

우매한 조직의 결속력보다 '개인의 신념'이 동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경보는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 ① 2문단에서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을 때'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줄을 서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그 줄 뒤에 설 확률이 더 높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어떤 집단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집단의 압력 때문에'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였으므로, 응집력이 강한 집단에 항거하는 것이 어려워져 동조 압력이 강해진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때'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스텐더리스 복장이 신뢰도를 높였으므로, 갑돌이 그 여성을 따라갔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문 12. 다음 대화 상황에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교사: 동아리 보고서를 오늘까지 내라고 하지 않았니?

학생1: 네, 선생님. 다정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교사: 이거, 큰일이네. 오늘이 마감인데.

학생1: 그러게요. 큰일이네요. 다정이가 집에도 없는 것 같아요.

학생2: 어떡해? 다정이 때문에 우리 모두 점수 깎이는 거 아니야? 네가 동아리 회장이니깐 네가 책임져.

학생1: 아니, 뭐라고? 다정이가 보고서 작성하기로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거잖아.

교사: 자, 그만들 해. 이럴 때가 아니잖아. 어서 빨리 다정이한테 연락이나 해 봐. 지금 누구 잘못을 따질 상황이 아니야.

학생3: 제가 다정이 연락처를 아니까 연락해 볼게요.

- ① 교사가 권위적인 태도로 상황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
② 학생1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있다.
③ 학생2가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끼어들어 책임을 언급함으로써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④ 학생3이 본질과 관계없는 말을 언급함으로써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

정답> ③

정답풀이>

제시된 대화 상황은 '동아리 보고서 제출 기한'에서 시작하여 '다정이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학생2가 이와는 관련이 없는 "네가 동아리 회장이니깐 네가 책임져."라고 하여,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끼어들어 '책임'을 언급함으로써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오답풀이>

- ① 교사가 "어서 빨리 다정이한테 연락이나 해 봐"라고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의 발화를 하고 있을 뿐,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② 학생1은 "다정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라고 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변명하는 것은 아니다.
④ 학생3은 "제가 다정이 연락처를 아니까 연락해 볼게요."라고 하여 '다정이의 부재'라는 대화 상황의 맥락에 맞게 문제 해결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문 13. 화자의 진정한 발화 의도를 파악할 때, 밑줄 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일상 대화에서는 직접 발화보다는 간접 발화가 더 많이 사용되지만, 그 의미는 **맥락**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화자는 상대방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간접 발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도 한다.

- ① (친한 사이에서 돈을 빌릴 때) 돈 가진 것 좀 있니?
- ② (창문을 열고 싶을 때) 애야, 방이 너무 더운 것 같구나.
- ③ (갈림길에서 방향을 물을 때) 김포공항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 ④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고 독려할 때) 우리 반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을 아주 잘 듣습니다.

정답> ③

정답풀이>

어떤 말이 직접 발화에 해당하는지, 간접 발화에 해당하는지는 주어진 장면(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직접 발화는 발화 형식과 발화 기능이 일치하는 표현으로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표현을 말한다. ③의 “김포공항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라는 문장은 발화 형식과 발화 기능이 일치하는 표현으로 직접 발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도 발화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오답풀이>

- ①은 ‘돈을 빌려달라’는 간접 발화에 해당한다.
- ②는 ‘창문을 열어달라’는 명령의 간접발화에 해당한다.
- ④는 ‘과제를 하라’는 간접발화에 해당한다.

더 알아보기> 발화 행위

- 직접 발화: 발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직접 표현하는 방법으로, 문장 유형과 발화 의도가 일치하며, 상황보다 의도가 우선 고려된다. ㉠ 창문 좀 열어 줘.
- 간접 발화: 상대방을 배려하여 전달 의도의 강도를 약화시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문장 유형과 발화 의도가 불일치하며, 의도를 상황에 맞춰 표현한다. ㉡ (창문을 열어 달라는 의도로) 정말 덥다.

문 14.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줄지에 부도를 맞았더니 참 안됐어.
그렇게 독선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돼.
- ②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게.
지금 네가 본 것은 실상의 절반에도 못 미쳐.
- ③ 저 집은 부부 간에 금실이 좋아.
집을 살 때 부모님이 얼마간을 보태 주셨어.
- ④ 저 사람은 아무래도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니야.
지난번 해일이 밀어닥칠 때 집채만 한 파도가 해변을 덮쳤다.

정답> ③

정답풀이>

- 부부√간(x) ⇨ 부부간(○): ‘간’이 ‘의존 명사’일 때는 띄어 쓰고 ‘접사’일 때는 붙여 쓴다. 그런데 ‘간’이 쓰였더라도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부부간’, ‘형제간’, ‘자매간’, ‘부자간’, ‘부녀간’, ‘모자간’, ‘모녀간’, ‘동기간’ 등은 한 단어이므로, 모든 음절을 붙여 적는다.

<의존 명사 ‘간(間)’>

1.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사이. ㉠ 서울과 부산 간
2. ((일부 명사 뒤에 쓰여)) ‘관계’의 뜻을 나타내는 말. ㉡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3. ((‘-고 -고 간에’, ‘-거나 -거나 간에’, ‘-든지 -든지 간에’ 구성으로 쓰여)) 앞에 나열된 말 가운데 어느 쪽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만 해라.

<접사 ‘간(間)’>

1.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이틀간
2. ((몇몇 명사 뒤에 붙어)) ‘장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대장간

- 얼마간(○): ‘얼마간’은 ‘그리 많지 아니한 수량이나 정도./그리 길지 아니한 시간 동안.’의 뜻으로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었다. ‘얼마간’을 붙여 쓴 것은 바르다.

오답풀이>

- ① 안됐어(○): ‘안되다’는 ‘섭섭하거나 가엾어 마음이 언짢다.’는 뜻의 형용사이며, 모든 음절을 붙여 적는다.
- 안√되(○): ‘안√되다’는 긴 부정문인 ‘되지 않다’를, ‘안’을 써서 짧은 부정문으로 나타내는 경우에 쓰인다.

- ② 아무것(○): ‘아무것’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어떤 것 일체.’ 또는 ‘(주로 ‘아니다’와 함께 쓰여)) 대단하거나 특별한 어떤 것.’을 뜻하는 명사로 모든 음절을 붙여 적는다.
- 본√것(○): 용언의 관형사형의 꾸밈을 받는 ‘것’은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의존 명사이다. 앞말과 띄어 쓴다.
- ④ 믿을√만한(○): 본용언 뒤에 오는 ‘만하다’는 보조용언이므로 ‘믿을 만하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믿을만하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 집채만√한(○): 체언 뒤에 오는 ‘만’은 보조사이므로 붙여 쓰고, 뒤에 오는 ‘하다’는 동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문 15. 어법에 어긋나는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철 내에서 뛰지 말고, 문에 기대거나 강제로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 ‘열다’는 타동사이므로 ‘강제로’와 ‘열려고’ 사이에 목적어 ‘문을’을 보충하여야 한다.
- ② ○○사에서 급증하는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 생활용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지 생활용수가 급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급증하는 생활용수의 수요’에 대응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로 고쳐야 한다.
- ③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 ‘사고 원인 파악을 마련하여’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앞의 명사구를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로 고쳐 절과 절의 접속으로 바꾸어야 한다.
- ④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 서류 등을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할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 ‘하되’는 앞뒤 문장의 내용을 연결하는 어미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하며’로 고쳐야 한다.

정답> ④

정답풀이>

어미 ‘-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된다. 첫째, 대립적인 사실을 잇는 데 쓰는 연결 어미로 쓰인다. (㉠ 그는 키는 작되 마음은 크다.) 둘째, 어떤 사실을 서술하면서 그와 관련된 조건이나 세부 사항을 뒤에 덧붙이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쓰인다. (㉡ 표 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추어 적는다.) 셋째, 뒤에 오는 말이 인용하는 말임을 미리 나타내어 보일 때 인용 동사에 붙여 쓰는 연결 어미로 쓰인다. (㉢ 제자들이 대답하되 “모르나이다.”)

④에 제시된 문장의 ‘-되’는 어떤 사실을 서술하면서 그와 관련된 조건이나 세부 사항을 뒤에 덧붙이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 따위를 나열할 때 쓰는 연결 어미인 ‘-며’로 수정할 필요는 없다.

오답풀이>

- ① ‘열다’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 ‘문을’을 보충하여 ‘문을 열려고’로 수정해야 한다.
- ②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 ‘생활용수’ 자체가 급증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급증하는 것이 ‘생활용수의 사용량’이거나 ‘생활용수에 대한 수요’는 될 수 있지만 ‘생활용수’ 자체일 수는 없다. 따라서 ‘급증하는’의 앞에 ‘수요’나 ‘사용량’과 같은 주어를 넣어 주어야 온전한 문장이 된다. 또는 ‘급증하는’ 것을 ‘생활용수에 대한 수요’로 보아 ‘생활용수의 수요에 대응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로 수정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다.
- ③ ‘과’의 앞에 있는 ‘사고 원인 파악’과 뒤에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서술어 ‘마련하다’를 부당하게 공유하여 문법상 대등한 구조에 어긋난 문장이 되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사고 원인 파악’을 마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로 수정해야 한다.

문 16. 다음 한글 맞춤법 규정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로’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나) 제19항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다)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라) 제20항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① (가): 미닫이, 줄음, 익히
 ② (나): 마개, 마감, 지붕
 ③ (다): 육손이, 집집이, 곰배팔이
 ④ (라): 꼬트머리, 바가지, 이파리

정답> ②

정답풀이>

(나)에서 “제19항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를 통하여 (나)에는 ‘용언’을 예로 제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②에 제시된 어휘 중 ‘마개(막+애)’와 ‘마감(막+암)’은 동사 ‘막다’에서 나왔으므로 (나)의 예로 적절하다. 그러나 ‘지붕’은 명사 ‘집’에 접사 ‘-음’이 붙은 것이므로 ‘용언의 어간’과는 관련이 없고 ‘명사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나)의 예로 ‘지붕’을 제시한 것은 옳지 않다. ‘지붕’은 (라) 제20항 [붙임]의 예로 드는 것이 옳다.

오답풀이>

- ① ‘미닫이’는 ‘밀어서 닫다’의 뜻을 나타내는 ‘미닫’ 뒤에 접사 ‘-이’가 결합된 명사이고, ‘줄음’은 ‘줄-(동사의 어간)’에 ‘-음(접사)’이 결합된 ‘명사’이며, ‘익히’는 ‘익-(동사의 어간)’에 ‘-히(접사)’가 결합된 부사이므로, (가)의 예로 적절하다.
- ③ ‘육손이’는 손가락이 여섯 개임을 뜻하는 ‘육손’에 ‘-이(접사)’가 결합된 명사이고, ‘집집이’는 ‘집집(명사)’에 ‘-이(접사)’가 결합된 부사이며, ‘곰배팔이’는 ‘곰배팔(명사)’에 ‘-이(접사)’가 결합된 명사이므로 (다)의 예로 적절하다.
- ④ ‘꼬트머리’는 ‘끝(명사)’에 ‘-오머리(접사)’가 결합된 명사이고, ‘바가지’는 ‘박(명사)’에 ‘-아지(접사)’가 결합된 명사이고, ‘이파리’는 앞(명사)’에 ‘-아리(접사)’가 결합된 명사이므로, (라)의 예로 적절하다.

문 17. 발음 기관에 따라 ‘아음(牙音)’, ‘설음(舌音)’, ‘순음(脣音)’, ‘치음(齒音)’, ‘후음(喉音)’으로 구별하고 있는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를 참조할 때, 다음 휴대 전화의 자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ㅋ	ㅣ ㅡ	ㅌ ㅍ
ㄷ ㅌ	ㄴ ㄹ	ㅊ ㅌ
ㅁ ㅂ	ㅅ ㅆ	ㅈ ㅊ
ㅊ ㅌ	ㅇ ㅎ	ㅍ ㅑ

- ①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 따르면, ‘ㅅ’은 ‘ㅆ’과 함께 배치할 수 있다.
- ② ‘ㅁㅂ’ 칸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의 양면을 모두 고려하여 같은 성질의 소리끼리 묶은 것이다.
- ③ ‘ㄷㅌ’과 ‘ㄴㄹ’ 칸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적용된 가획 등의 원리에 따른 제자 순서보다 소리의 유사성을 중시하여 배치한 것이다.
- ④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서 ‘ㅇ’과 ‘ㅎ’은 구별되었다.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 따르면, 이 중에서 ‘ㅎ’은 ‘ㄱ’과 함께 배치할 수 있다.

정답> ②

정답풀이>

훈민정음의 자음은 소리 내는 위치에 따라 ‘아음(牙音)’, ‘설음(舌音)’, ‘순음(脣音)’, ‘치음(齒音)’, ‘후음(喉音)’의 다섯 가지로 나누고,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전청(全淸)’, ‘차청(次淸)’, ‘전탁(全濁)’, ‘불청불탁(不淸不濁)’의 네 가지로 나눈다. 이를 참조하여 ‘조음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ㅁ’은 ‘순음(脣音)’에 해당하고, ‘ㅂ’은 ‘치음(齒音)’에 해당한다. 또 ‘조음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ㅁ’은 ‘불청불탁(不淸不濁)’에 해당하고, ‘ㅂ’은 ‘전청(全淸)’에 해당한다. 따라서 ‘ㅁㅂ’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이 같은 성질끼리 묶은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 따르면, ‘ㅅ’은 치음(齒音)의 기본자이고, ‘ㅆ’은 치음(齒音)의 가획자이므로, 이들을 같은 칸에 배치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③ 훈민정음 초성의 제자 원리에 ‘ㄴ’은 설음의 기본자에 해당하고, ‘ㄷ’, ‘ㅌ’은 설음의 가획자에 해당하며, ‘ㄹ’은 이체자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ㄷㅌ’과 ‘ㄴㄹ’을 따로 묶은 것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적용된 제자 원리에 따른 순서로 보기는 어렵다. ‘ㄷㅌ’은 안올림소리에 해당하고, ‘ㄴㄹ’은 올림소리에 해당하므로, 제자 순서보다 소리의 유사성을 중시하여 배치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④ ‘ㅇ’은 후음(喉音)에 해당하고 ‘ㅎ’은 아음(牙音)에 해당한다.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 따르면 ‘ㄱ’도 아음(牙音)에 해당하므로 ‘ㅇ’과 ‘ㄱ’을 같은 칸에 배치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더 알아두기>

1. 훈민정음의 자음 제자 원리

구분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제자 원리
아음(牙音)	ㄱ	ㅋ	ㅇ	象舌根閉喉之形(상설근폐후지형):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본됨.
설음(舌音)	ㄴ	ㄷ, ㅌ	ㄹ	象舌附上齶之形(상설부상악지형):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본됨.
순음(脣音)	ㅁ	ㅂ, ㅍ		象口形(상구형): 입의 모양 본됨.
치음(齒音)	ㅅ	ㅆ, ㅈ, ㅊ	ㅌ	象齒形(상치형): 이의 모양 본됨.
후음(喉音)	ㅇ	ㅎ, ㆁ		象喉形(상후형): 목구멍의 모양 본됨.

2.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

소리 내는 방법 소리 내는 위치	예사소리 [전청(全淸)]	거센소리 [차청(次淸)]	된소리 [전탁(全濁)]	올림소리 [불청불탁(不淸不濁)]
아음(牙音, 어금닛소리)	ㄱ	ㅋ	ㄱ	ㅇ
설음(舌音, 혓소리)	ㄴ	ㄷ	ㄴ	ㄴ
순음(脣音, 입술소리)	ㅁ	ㅂ	ㅂ	ㅁ
치음(齒音, 잇소리)	ㅅ, ㅆ	ㅈ, ㅊ	ㅅ, ㅆ	
후음(喉音, 목구멍소리)	ㅇ	ㅎ	ㅎ	ㅇ
반설음(半舌音, 반혓소리)				ㄹ
반치음(半齒音, 반잇소리)				ㅌ

문 18. 다음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덕기는 분명히 조부의 이런 목소리를 들은 법하다. 꿈이 아니었던가 하며 소스라쳐 깨어 눈을 떠보니 머리맡 창에 별이 뽀뽀하듯 비친 것이 어느덧 저녁때가 된 것 같다. 벌써 새로 세시가 넘었다. 아침 먹고 나오는 길로 따뜻한 데 누웠으려니와 잠이 폭폭 왔던 것이다. 어쨌든 머리를 쳐드니, 인제는 거뜬하고 몸도 풀린 것 같다.

“네 처두 목으라고 하였던단 모래는 너두 들을 테냐? 들르면 무얼 하느냐마는…….”

조부의 못마땅해하는, 어떻게 들으면 말을 만들어 보려고 짓궂은 비꼬는 강강한 어투가 또 들린다.

덕기는 부친이 왔나 보다 하고 가만히 유리 구멍으로 내다보았다. 수달피 깃을 댄 검정 외투를 입은 훌쩍한 뒷모양이 뜰을 격하여 뒷마루 앞에 보이고 조부는 창을 열고 내다보고 앉았다. 덕기는 일어서려다가 조부가 문을 닫은 뒤에 나가리라 하고 주저앉았다.

“저야 오지요마는 덕기는 불드실 게 무엇 있습니까. 공부하는 애는 그보다 더한 일이 있더라도 날짜를 대서 하루바삐 보내야지요…….”

이것은 부친의 소리다. 부친은 가냘프고 신경질적인 체격 보아서는 목소리라든지 느리게 하는 어조가 꼭 똥똥인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 염상섭, 「삼대」 —

- ①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시선을 빌려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②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③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들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정답> ①

정답풀이>

제시문의 ‘덕기는 분명히 조부의 이런 목소리를 들은 법하다.’에서 서술자는 ‘덕기’의 시선을 빌려 ‘조부’를 언급하고 있다. ‘덕기는 부친이 왔나 보다 하고 가만히 유리 구멍으로 내다보았다.’에서도 ‘덕기’의 시선을 빌려 ‘부친이 왔나 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서술자인 작가의 입장이라면 ‘조부’나 ‘부친’이라는 말 대신에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이름으로 이들을 표현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름을 쓰지 않고 ‘조부’나 ‘부친’이라는 말을 써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술자는 등장인물 중 하나인 ‘덕기’의 시선을 빌려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② 시대적 배경과 관련된 어휘는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③ 등장인물의 한 사람인 ‘덕기’의 시선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을 뿐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제시문의 공간적 배경은 덕기의 집이고,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장면에 따라 시점이 바뀐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진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더 알아보기> 염상섭, ‘삼대’

일제 강점기 서울 중산층 가문의 현실 대응과 몰락 과정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려 낸 리얼리즘 소설로, 가족사 소설에 해당된다. 이 소설(1931년 《조선일보》)은 한말 세대(조 의관)의 보수성과 개화기 세대(조상훈)의 정신적 파탄, 식민지 세대(조덕기)의 진보성으로 대표되는 조(祖)·부(父)·손(孫)의 삼대를 통해 세대 간의 단절과 갈등을 보여 주는 동시에, 당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한국 근대사의 변천 과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문 20.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소설의 출현은 사적 생활이라는 개념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소설 읽기와 쓰기에 있어 사적 생활은 필수적인 까닭이다. 어쩌면 사적 생산과 소비 형태 탓에 사생활은 소설이라는 장르의 태동 때부터 소설의 중심 주제였지도 모른다. 혹은 이와는 반대로 사적 경험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을 탐색해야 할 필요 탓에 소설이 생긴 것인 지도 모른다. …… 사적 공간은 개인, 가족, 친구, 그리고 자기 자신 등과의 교류에 필요한 은밀한 공간이 실제 생활 속에 구현되도록 도왔다. 자기만의 내적인 것에 대한 추구는 사람들의 이상이 되었고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의 존재 방식과 글쓰기 행태에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전의 지배적 문학 형태인 서사시, 서정시, 희곡 등과는 달리 소설은 낭독하는 전통이 없었다. 또한 낭독을 이상으로 삼지도 않고, 청중의 참여를 전제로 하지도 않았다. 소설 장르는 여럿이 함께 모여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청중 개념의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세기는 르네상스 시대와 17세기와는 달리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나누는 단일 사회가 아니었다. 따라서 청중이 한자리에 모여 동일한 가치를 나누는 일이 점차 불가능해졌다. 혼자 소리 내지 않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미 사적 생활에 상당한 의미를 두게 되었음을 뜻한다. ……

이러한 사적 경험으로서의 책 읽기에 대응되어 나타난 것이 사적인 글쓰기였다. 사적으로 글을 쓸 경우 작가는 이야기꾼, 음유 시인, 극작가들과 달리 청중들로부터 아무런 즉각적 반응도 얻을 수 없다. 인류학자,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언어의 의미는 그것을 쓸 때의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고 한다. 그러나 글쓰기, 그중에도 특히 인쇄에 의해 복제된 글쓰기는 작가에게서 떨어져 나와 결국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자율적 담론을 창조하게 되었다.

- ① 사적인 글쓰기의 출현으로 작가는 독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자기만의 내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를 요구하였다.
 ③ 소설은 사적 공간에서의 책 읽기와 글쓰기가 가능해진 시기에 출현하였다.
 ④ 희곡작가는 낭독을 통해 청중들과 교류하며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나누고자 하였다.

정답> ①

정답풀이>

3문단의 “사적으로 글을 쓸 경우 작가는 이야기꾼, 음유 시인, 극작가들과 달리 청중들로부터 아무런 즉각적 반응도 얻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통해, 사적인 글쓰기의 출현으로 작가가 독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② 1문단의 마지막 부분 “자기만의 내적인 것에 대한 추구는 ~글쓰기 행태에 변화를 요구하였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1문단의 첫 부분 “소설의 출현은 사적 생활이라는 개념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소설 읽기와 쓰기에 있어 사적 생활은 필수적인 까닭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2문단의 첫 부분 “이전의 지배적 문학 형태인 서사시, 서정시, 희곡 등과는 달리 소설은 낭독하는 전통이 없었다.”를 통해 소설은 낭독하는 전통이 없었지만 희곡작가는 낭독을 통해 청중들과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 19. 다음 조건을 모두 참조하여 쓴 글은?

- 대구(對句)의 기법을 사용할 것
 ○ 삶에 대한 통찰을 우의적으로 표현할 것

- ① 낙엽: 낙엽은 항상 패배한다. 시간이 지나고 낙엽이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계절의 객석에 슬픔과 추위가 찾아온다. 하지만 이 패배가 없더라면, 어떻게 봄의 승리가 가능할 것인가.
 ② 비: 프랑스어로 ‘비가 내린다’는 한 단어라고 한다. 내리는 것은 비의 숙명인 것이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토끼는 짹짹 뛰다. 자연은 모두 한 단어이다. 우리의 삶도 자연을 닮는다면 어떨까.
 ③ 하늘: 하늘은 언젠가 자기 얼굴이 알고 싶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자신을 비취줄 만큼 큰 거울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소녀를 발견했다. 포근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소녀의 눈동자를 하늘은 바라보았다. 거기에 자신이 있었다.
 ④ 새: 높이 나는 새는 낮게 나는 새를 놀려 댔다. “어째서 그대는 멀리 보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가? 기껏 날개가 있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러자 낮게 나는 새가 대답했다. “높은 곳의 구름은 멀리를 바라보고, 낮은 곳의 산은 세심히 보듬는다네.”

정답> ④

정답풀이>

“높은 곳의 구름은 멀리를 바라보고, 낮은 곳의 산은 세심히 보듬는다”에 대구의 기법이 쓰였다. 또한 ‘높은 곳을 나는 것’과 ‘낮은 곳을 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삶에 대한 통찰을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① 낙엽이 패배한 이후에 찾아오는 ‘봄의 승리’를 통해 삶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통찰하고 있지만 대구의 기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②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토끼는 짹짹 뛰다.”에 대구의 기법이 쓰였다. 그러나 삶에 대한 통찰을 우의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③ ‘자신을 바라보는 소녀의 눈동자에 담긴 하늘’을 통해 삶에 대한 통찰을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대구의 기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